

구세군 유미혜 사관

되고 싶은 건 그들의 벗

에이즈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에이즈가 죄가 아니라 다만 하나의 질병이 되기 위해 무척 좋은 일이다. 더욱이 감염인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 친구로 받아들여진다는 건 가슴 따뜻해지는 일. 따뜻한 사람 유미혜 사관을 만나다.

기자가 유미혜 사관을 만나 직접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다. 목소리나 지면을 통해 아주 조금 듣고 있었을 뿐이다. 만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키가 작으니 윗부분만 찍어달라고 했다. 그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커보였으므로. 참 너털하고 넓어보였으므로. 아마 엄마라면 그렇게 커 보일까. 직책과 명성에 비해 매우 어린 듯한 목소리뿐 아니라 너그럽고 푸근하지만 맑은 얼굴은 나이를 알고 다시 놀라게 만든다.

“정말 되고 싶은 건 감염인들의 진정한 친구예요.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동반자, 좌절하고 슬퍼하던 그 친구들이 나와 동료들을 알게 되고 친하게 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지요.” 구세군 HIV예방사업단에 몸담고 있는 유 사관은 현재 주력사업은 감염인 케어(care)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케어는 아픈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이 개념은 감염인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쪽에 가까워요. 처음 감염되고 할 바를 몰라 절절때는 이들의 손을 잡아준다고 할까요.” 과정을 알려주고 대신해줄 수는 없지만 지켜봐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친구가 된다.

>>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위해 강도 높은 교육

이를 위해 작년부터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에 착수하여 8명이 수료하였고 올해는 더 많아져서 2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사람 한사람의 몫이 크고 매우 전문적이어서 하브로 강도 높은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한다. 감염인들을 만나 ‘친구’가 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다.

“감염된 지 8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염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건강은 이미 많이 나빴고 시디포(CD4)세포수가 100이하였어요. 가족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고요.”

본인이 처음엔 몹시 어색하게 여겨서 한달에 한번 꼴로만 만나다가 차츰 찾아지고 유미혜 사관은 가족도 많이 만났다. 가족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계속되고 어머니가 어느 날 마음을 열었다.

유미혜 사관이 감염인인 아들과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받아들여지게 됐다. 관계가 좋아지고 어머니가 돌보기 시작하고 주변사람이 그를 감싸고 마음의 괴로움이 덜어지면서 건강이 한결 좋아졌다.

“마음이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제적인 걱정, 미움 받는다는 걱정들이 사라지면서 밥도 잘 먹고 의욕이 생기니 열심히 치료하고, 자연히 좋아지죠.”

유미혜 사관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정신적인 좌절감과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던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고아원에서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갈 길을 정하고 구세군이 되었다. 1991년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중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이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에이즈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가족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계속되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마음을 열었다.
유미혜 사관이 감염인인 아들과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받아들이게 됐다.

“개인의 존엄성은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인데 에이즈는 그 부분이 가장 쉽게 침해당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는 입장이 되는 조건이지요.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인간이 무시되고 빼앗겨도 되는 일이 아닌데 그런 횡포가 벌어져요. 그걸 꼭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96년 국제구세군과 한국에서 워크숍이 열렸는데 대화하다가 유 사관이 에이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97년 유 사관은 국제구세군의 주최로 한국 구세군 3, 4명과 함께 스리랑카, 홍콩, 케냐 등의 에이즈를 보게 되었다. 98년 12월 1일 다섯 사람으로 에이즈 담당 팀이 결성되었다. 2000년부터 유 사관이 본부 사무실을 맡게 된 것이 본격적인 에이즈 예방 사업의 시작이다. 감염인 단체나 보건소, 병원 등을 통해 감염인을 알게 되는데 주로 감염인이 다른 감염인을 소개하는 일이 많다. 케이스마다 개별적인 상담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감염인을 알게 될 수록 처음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한다. 존중받아야 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며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누구보다 자신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 감염인이 보통 사람이 되는 날 기다려

유 사관은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감염인이 어떤 대변자의 뒤에서 소극적으로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날, 감염인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구성되는 날.”

“그들을 알게 되면서 기쁘고 좋은 점이 많았어요. 사심이 없이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관계는 보통 인간 관계에서 얻기 어려운 거잖아요. 부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서, 기뻐서 사귀는 것.”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 그 한가지다.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삶을 태울 수 있다니 어쩌면 참으로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김소라 레드리본 기자